

# 중국문화와 증치세법 연구

趙光熙\*, 鄭泰範\*\*

## <目 次>

1. 서론
2. 증치세법의 특징 고찰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와의 차이점
4. 결론

## 1. 서론

중국은 불교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전통문화로서의 그 뿌리가 깊고 유가사상 등 철학과 사상이 존재하여 사회제도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상업적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기업문화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과 세제 등의 연구를 위하여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은 또한 그 문화적인 속성에 더불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체제도 현대의 중국사회를 이루는데 그 근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증치세제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해보고 중국의 증치세제가 변화해가는 단계에서 중국의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와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의 증치세법과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은 비슷한 점이 존재하면서도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여주는바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 동국대학교 경영대 조교수, phdcho@dongguk.edu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tbjeong@sm.ac.kr

문화, 그리고 정치상황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투영된 제도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이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증치세법이 갖는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증치세법 수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생산형 증치세법과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에 대한 중국의 경제상황에 집중 조명한다. 또한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경제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며, 중국의 사회주의가 증치세법의 포지티브시스템에 주는 효과를 요약한다. 중국의 지역별 특성이 증치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으로서 중국의 문화와 관련 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 2. 증치세법의 특징 고찰

### 1) 생산형 증치세법과 소비형 부가가치세

중국에서 증치세법이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제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치세는 중국 내에서 화물을 매출하거나 가공, 수리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취득한 화물 혹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노무의 매출액 및 화물을 수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실시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증치세는 구성요건과 증치세법의 적용범위, 징수하기 시작하는 증치세의 목적,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그리고 계산, 감면, 세무기관의 징수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부가가치세제는 과세기준을 정할 때 자본재 투입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크게 생산형과 소비형으로 구분된다. 생산형은 총수입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재 투입액만을 공제하는데 반하여 소비형은 중간재 투입액과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국은 생산형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소비와 생산의 개념이 자본주의와 다른 중국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도 시장경제를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현행 증치세를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바꾸어 중복과세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형 부가세제가 도입되면 중복과세 논란이 줄어들고 투자의 증대 등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1)

## 2)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아담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여 시장의 원리에 의한 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계획경제는 자율적인 시장 경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을 인간의 합리적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장점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단점으로서 시장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격의 기능으로서 제공할 수 없는 공공재의 생산이 부족하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자기모순으로 시장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화의 생산이나 불평등한 부의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화 혁명을 끝낸 중국은 1970년대 후반 들어서 개혁과 개방의 실험을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중국의 헌법에 반영됨으로써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

첫째, 경제 관계를 시장화 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모든 경제활동

1) Shuanglin(2008)는 중국의 증치세를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바꾼데 대하여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

2) 현대중국경제(유희문의 11인) 제3절.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추진'을 기초로 작성.

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생산할 품목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등이 모두 시장의 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생산활동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사회생산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으로서 생산, 분배, 교환, 소비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고 이를 위한 가격변수인 급여수준, 이자율, 외환가격, 세금, 생산물의 가격 등 또한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둘째, 경제 주체를 시장화 시키는 것이다. 기업은 시장경제체제를 따르면서 상품 생산과 경영의 권한을 가지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은 이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장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의 주체중 하나인 기업은 경쟁체제를 통하여 생존하며 발전하려 하고 그에 대한 기준으로서 경제효율과 사회효율을 추구하고 평등한 시장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거시경제측면에서 정책을 간접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와 다르게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시정책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재정정책과 화폐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간접적으로 관리 조절하고 규범화하여 시장 스스로 순조로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넷째, 경영관리를 법률로 제도화 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의 모든 기업의 행동은 자유로우나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법규에 따라 경영활동이 평가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한 룰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특권과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특징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분배제도와 소유제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생산요소의 공유제 원칙이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민소유제기업과 집체기업이 시장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개체와 사영 그리고 외

자기업은 단지 시장 활동의 보충적 역할만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경제 성분은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은 기타 기업과 일률적으로 시장에 진입시켜 일반 시장 규율에 따라 경영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분배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유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유제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소유권으로 얻은 소득이 개인 소득의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지만 공유제를 실행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로서 소득을 바라보고 있을 뿐 소유권에 따른 소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서방의 시장경제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기획원이 주도하던 개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따르던 우리나라와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계획경제에서는 유사한 면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앙정부가 계획, 생산, 수출입과 분배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계획경제체제이며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계획경제체제이므로 그 출발점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계획경제체제는 생산수단 즉 원자재와 기계 및 설비, 토지 등의 소유구조가 국가소유와 집단소유로 특징된다. 여러 부문 가운데에 특히 공업부문에서 사회주의 공유제가 지배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며 민간과 국가가 공동출자한 기업도 주로 국영기업형태로 운영되었다. 특히 도시의 집단소유제 기업에는 개인수공업자의 작업장이 통합되는 가운데에 형성되어진 것이 많으며 도시의 집단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의해 통제 관리되어 졌다. 이와 같이 계획경제체제는 생산수단 등에 대한 국가소유와 집단 소유의 공유제 기업이 지배하는 구조였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와 당이 모든 공유제 기업을 통제했고 기업을 획일적으로 지배했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국가 소유와 집단 소유의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소유제가 사회주의 공유제의 구성주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현행 증치세가 생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구조가 자본주의는 다르게 국가소유나 집단소유로 되어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공급자 시장(suppliers' market)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수요자 시장(demanders'

market)의 경제 형식을 띠고 있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 형태와는 다르게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른 부문이 필요로 하는 물자만을 공급하는 경제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자연히 소비형에 기초한 부가가치세제보다는 생산형 증치세의 구조와 같은 비효율적인 세제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 계획당국에 의한 상품의 가격결정은 사회주의적인 이념과 생산비용 측면에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가격은 수요와 생산비용 모두를 왜곡되게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계획당국은 가격결정과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없었다. 증치세 구조에서 자본재 투입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피할 수 있는 소비형 구조는 정치는 사회주의를 따르면서 경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려하는 중국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보다 효율적인 세제로 보인다. 과거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던 계획경제하에서 비롯된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가격구조가 기능하지 않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가격과 유사한 매커니즘은 필요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상황과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계획경제하에서의 가격의 매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계획경제에 있어서도 가격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계획당국이나 관리자들에게 생산자원이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계획경제하에서의 당국은 시장경제하의 당국보다 적은 정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물과 산출물의 최적상태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의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겠다. 보편적으로 계획당국의 관리자들에게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데 가격은 이러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관리자들의 최적적인 자원배분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가격은 시장경제하에서의 가격과는 다르게 생산비용과 수요와 공급 모두를 왜곡되게 반영함으로써 대개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져오는 정

보를 제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투자수준이 적정수준보다 낮은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증치세 구조에 국한하여 본다면 생산형 부가가치에서 자본재 투입액의 공제를 불허함으로써 이러한 자본재 투입액의 증가를 장려하지 못하며 부가가치가 과대 평가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제상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본재 투입이 세제상 특별히 유리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이 소비형 증치세 구조하의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왜곡된 시장하에서 과소투자 행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가격의 기능상실로 인하여 생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중국의 상품 생산 비용이 기초로 한 것은 평균비용이다. 경제 원리에 따르면 한계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평균비용에 기초하다보니 고정자산의 손상을 복구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에 도달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즉 감가상각은 체계적인 비용배분의 절차라는 개념이 자본주의를 따르지 않았던 중국에서는 빈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중국당국이 결정하는 가격구조는 실질적인 생산비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중국의 증치세 구조는 이러한 광범위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 3)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경제제도

#### (1) 불교 문화권과 중국의 경제제도

각국의 경제제도를 이야기 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중국은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증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법이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의 축적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불교문화권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 기독교의 사상에서는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프로테스탄트의 등장으로 이자를 허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서구 자본시장의 발달을 이루었다

하겠다. 현재에도 이슬람권에서는 이자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하여 채권의 발행 시에도 물건을 제공하는 이윤의 형태로 이자를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시장친화적인 불교 문화권에 있는 중국이 사회주의 속에서도 시장경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즉 불교는 기독교나 이슬람과는 다르게 이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축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불교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는 개혁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오랜 카스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기존의 사상과 종교를 비판하였다.<sup>3)</sup> 이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제도와 일견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유명한 이야기는 불교의 혁신적인 요인이 그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도 이러한 혁신적인 측면 때문에 그 당시 신흥 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각종 경제적인 제도의 발전의 뒷받침이 되었다.

## (2) 상업자본주의와 중국<sup>4)</sup>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상업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 그것은 중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과 문화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전통 상업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공자의 유가사상, 노자의 도가사상, 한비자의 법가사상 그리고 손자병법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증치세법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논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상업자본주의에 근간이 되는 중국의 사상은 후대에 계획경제의 틀안에서도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중국의 유연성을 제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불교의 제정과 회계에 관한 원칙 (윤성식, 2009)에서 인용.

4) 2009년 9월17일에 개최된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의 제15차 국제학술심포지움 “중국의 전통상업문화와 현대시장문화”를 기초로 작성.

① 유가사상<sup>5)</sup>

춘추시대에 주로 활약한 공자는 인(仁)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朝聞道 夕死可矣 (조문도 석사가의) 즉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구도의 신념을 가지고 교육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를 강조하였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규범을 상실하던 춘추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공자는 학문과 도덕에 대해 말하기를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에 뜻을 세우고 마흔에 의혹을 느끼지 않고 쉰 살에 지천명을 알게 되고 예순에는 듣고 싶은대로 들을 수 있고 보고 들은 사물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칠순이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몸과 마음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공자의 인생을 정리한 말로써 공자의 생활태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문화에 미치는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유가사상에 대해서 집중 조명함으로써 기업가 정신 더 나아가 기업문화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공자사상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중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공자에게 있어서 인의 사상은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듯하다. 제자 번지(樊遲)는 인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는데 세 번 모두 다른 대답을 들어야 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비록 수고에 비해 그 공이 적다는 것을 알더라도 감히 실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성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덧붙여서 말하면 공자의 인(仁)은 결국 사랑의 정신과 인간다움을 말하는데 仁者人也 즉 仁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공자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가사상체계는 도덕을 이상으로 삼으며 이상적 목표는 덕으로서 인간다움의 바탕으로서 사람의 천성에 부합된다. 이의 실천을 위한 경로로서 사람을 교화하여 인과 도덕 교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을 가르치는 제도규범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고 있다. 공자가 인을 언급한 것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자가 언급한 仁은 다음과 같다.

5) 중국고전의 인간학(이찬도 역, 1991)에서 인용 .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자왈, 교언영색 선의인)

- 공자 말씀하시길, 말을 교묘하게 잘하고 남에게 보기 좋게 꾸며대는 사람은 인이 드물다.

子曰 弟子 入則孝 出則弟 (자왈 제자 입즉효 출즉제)

- 공자 말씀하시길, 집에서는 부모께 효를 다하고, 밖에서는 우애를 다하라.

子曰 當仁不讓於師 (자왈 당인불양어사)

- 공자 말씀하시길, 인을 실천할 일에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한다.

子曰 剛毅木訥 近仁 (자왈 강의목눌 근인)

- 공자 말씀하시길, 강직하고 무미진조한 사람은 인에 가깝다.

子曰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 공자 말씀하시길, 오직 어진 자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공자의 사상은 성선설의 사상을 전한 맹자와 성악설을 강조한 순자로 이어진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착하다는 사상을 전했으며, 공자의 '인' 사상에 의로움을 덧붙여 두려움과 욕심을 억누르고 끈은 마음을 지니는 것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순자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예를 통해 이익과 쾌락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춘추 전국 시대의 유가 사상은 시대의 혼란스러운 사회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생, 가족, 도덕, 교육과 지식 중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갖추고자 하였다.

한나라 시대에 유가사상은 국교화가 되면서 체계화되었고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경학(經學)'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송나라시대에 발전한 주자학은 성리학으로도 불리는데 경학의 기초 위에 중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로서의 사상인 불가와 도가 사상을 흡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유가 사상에서는 우주의 근본인 이(理)와 사람과 사물을 포함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氣)'가 존재하고 있고 보다 완전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의 불완전함을 완성된 상태로 유인해 갈 수 있는 우주의 근본인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인 이를 찾기 위해 학문과 도덕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후 명대에 와서 성리학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가 객관적 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며 인간은 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양명학을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발전하였던 유가 사상은 근대 이후 서구 열강의 침입과 청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며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는 유가는 타도되어야 할 봉건적 사상으로 지목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중국세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상업문화를 이루는 근간인 이러한 유가사상을<sup>6)</sup>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이 실험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내에서의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유연성과 적응성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상업문화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 ② 도가사상

도가사상은 노자사상을 기본으로 사상체계가 형성되었다. 노자는 당시 사회 혼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재에 대한 탐구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본래부터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인간만의 배타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편견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고난 순박한 인간성을 상실한다고 제시한 노자는 인간을 오도하는 인간의 문화를 부인하면서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난 대로 선악 이전의 순진무구한 모습과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소박한 삶, 즉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하였다. 도의 이상을 따르면 자연스러우며 이상목표는 평화롭고 태평스러운 삶이다. 관리 효율로 보면 노자는 순박한 인간성을 지키고 무위자연의 도(道)와 이에 입각한 겸허(謙虛)와 덕(德)을 중심으로 하며, 도(道)란 우주만물이 법칙 또는 본질을 의미하고, 덕(德)이란 인간의 참된 마음, 혹은 마음의 쓰임을 말한다.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무위자연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수익이 무한히 큰 경지에 이르게 하는 등 투입과 산출의 측면에서 보면 그 효율성이 매우 높는데 이는 노자

6) 주생춘(2009)은 사회책임과 사회자본으로부터 중국전통상업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의의를 기술하고 있다. 즉 유가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도덕규범과 상업윤리를 세우고 이것이 다시 상업과 사회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의 리더쉽과 관리효율의 측면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론과 유사한 것으로서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내에서 관리효율을 도입하는데 사상적인 유연성을 제공해준 것으로 보인다. 7) 즉 증치세법의 생산형 단계에서의 소비형 단계로의 전이는 이와 같은 관리효율의 사상과 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③ 손자병법

춘추시대말 손무(孫武)가 지은 손자병법은 자본주의 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사상을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상업문화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한서 漢書> 예문지(藝文志)에는 82편, 도록 9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 남아 있는 송본(宋本)에는 계(計)·작전(作戰)·모공(謀攻)·형(形)·세(勢)·허실(虛實)·군쟁(軍爭)·구변(九變)·행군(行軍)·지형(地形)·구지(九地)·화공(火攻)·용간(用間) 등의 13편만이 전해진다. 경쟁여부를 나타내는 계는 경쟁승부를 결정하는 요소와 가늠하는 표준을 말하며 작전은 경쟁목표, 모공은 이기는 원칙을 표현한다. 형에서는 지형은 분석하고 투입량을 계산하고 수를 헤아리며 승부를 생각하는 것이 이익을 계산하는 바와 같다. 용간은 성공하는 것은 남보다 먼저 안다는 것으로 경쟁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주생춘(2009)은 훌륭한 상업도덕은 사회자본으로서의 거래를 추진하고 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을 낮추어 신용적인 측면이나 시장의 확장에 도움을 주므로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유가, 도가, 손자병법의 병가 사상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던 중국에게 시장친화적인 선택 - 예를 들어서 생산형 증치세법에서 소비형으로의 전환 - 을 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를 제공한 동시에 중국의 각종 경제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 도가사상의 핵심은 자기조직화 개념이다. (최창현, 2002)

#### 4) 사회주의와 포지티브시스템

중국인 사회주의 속성상 세법을 포함한 각종 행정규제 등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허용되는 경우만 나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개방의 속성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모든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증치세법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sup>8)</sup>

중국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아래에 나열하는 요구에 따라서 발행해야 한다.  
가. 필적이 선명해야 한다.

나. 글자를 고쳐서는 안된다.

다. 기입할 항목은 모두 기입해야 한다.

라. 계산서의 내용과 물품은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마. 각 항목의 내용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의 모든 사항에 언급할 정도로 포지티브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 5) 지역적 특성 9)

중국사람들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북쪽사람들은 대부분 듄직하고 지식이 있고 풍속이 소박하지만 융통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중부사람들은 사리추구를 하며 동부사람들은 장사하기를 좋아하고 남부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검소하다. 현재 증치세제의 개혁안이 중부로 확대되고 있는데는 사리추구를 좋아하고 장사하기를 좋아하는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중부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2004년부터 동북3성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

8) 고권석 중국세법해설 삼일회계법인 p.166.

9) 조세연구원 2008년 11월 발표한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부분 보고서에서 중국세법을 요약정리함.

는 증치세 개혁조치를 중부6성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한다. 기업의 기술향상 및 국내 수요 진작,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증치세법 개정 법안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기로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생산형 부가세 시스템에서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으로 전환을 의미하는데 즉, 기계장치 구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 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소비형 부가세제로의 전환을 통해 약 1,200억 원(약 176억 달러) 가량의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있는 조세감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7년 기준으로 증치세 세수가 1.5조 원을 초과하며 이는 전체 세수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증치세법 개정내용 비교

개정 이전	개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형 부가세 시스템</li> <li>• - 기계장치 구입 시에 매입세액공제 불가</li> <li>• - 다만, 동북삼성(요녕, 길림, 흑룡강)과 중부 6성(하남, 호남, 호북, 삼서, 안휘, 강서), 사천·원촨 지진피해지역에서 소비형 증치세제 시범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li> <li>-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실시</li> <li>- 기계장치 구입 시에 매입세액공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 도입을 통한 기술발전 및 산업 고도화 촉진'을 위해 외자기업 및 국가발전장려국내기업들의 외국설비 구입에 대해 증치세 면제</li> <li>- 면제대상품목: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상의 장려항목 또는 제한항목 乙, "국가중점발전산업상품기술목록"상의 품목(단, "면세불허상품목록"상의 품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기업 및 국가발전장려국내기업들의 외국설비 구입에 대해 증치세 면제혜택 폐지</li> </ul>

<p>○ 외자기업들의 국산설비 구입에 대해 증치세를 100% 환급하여 줌.</p> <p>- 환급대상품목: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상의 장려항목 또는 제한항목 乙(단, “면세불허상품목록” 상의 품목 제외)</p>	<p>○ 외자기업들의 국산설비 구입에 대한 증치세 환급혜택 폐지</p> <p>- 이로써 내·외자기업 간에 차별이 폐지됐음.</p>
<p>○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4% 또는 6%의 이원적인 증치세율 적용</p> <p>- 상업기업이면 4%의 증치세율 적용</p> <p>- 기타 경우에는 6%의 증치세율 적용</p> <p>* <u>소규모 납세자의 기준</u></p> <p>· 재화의 제조 또는 과세용역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자, 주로 재화의 제조 또는 과세용역 제공에 종사하나 재화의 도소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 증치세 과세대상 연매출이 100만 원 이하</p> <p>· 재화의 도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 과세대상 연매출이 180만 원 이하</p>	<p>○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상업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3%의 단일세율 적용</p>
<p>○ 광업품에 대해 13%의 증치세율 적용</p>	<p>○ 광업품에 대한 증치세율 인상 (13%→17%)</p>

출처: 조세연구원, 2008년 11월

## 6) 증치세

중국정부는 1993년 말에 대규모의 세제개혁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증치세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994년 1월1일 정식으로 실시한 새로운 증치세를 기존의 증치세와 비교하면 주로 다음을 크게 개혁하였다.

첫째, 증치세 과세대상은 본래 국내의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생산한 부분적인 제품에 대해서만 징수하였는데 모든 제품의 생산, 도매, 소매, 수입과 가공, 수리를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 모두 보편적으로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바뀌었다.

둘째, 증치세는 가격 외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셋째,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세액을 기본으로 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

넷째, 원래의 세율 단계가 너무 많으면 제품 간에 세수 부담이 불공평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등급의 세율의 약식을 채용함으로써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였고 세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원칙을 구현하였다.

증치세의 주요 장점으로는 감독, 그리고 징수 과정의 보편성, 연속성, 합리성을 들 수 있다. 세금을 반복 징수하는 피해를 줄이고 효율성의 원칙에 기초한 과세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 요소를 반영하였다. 또한 수출한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편리한 제도로 되어 있다. 수출상품에는 국제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동시에 중국 자국 상품에는 국내시장 경쟁력을 부과하여 중국 상품을 보호하고 있다. 추가로 세무당국의 탈세방지나 세무조사 등에도 유리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증치세와 다른 나라의 세제를 비교하면, 서방 대부분의 나라는 소비성 증치세를 따르는데 반하여 중국의 증치세법은 생산성 증치세법으로서 고정자산의 투입액을 공제하지 않는 반면 소비성 증치세제에서는 이 부분을 비용으로 뺄 수 있다.

납세 주체를 규정하는 범위에서도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시스템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증치세는 일반납세인과 법인만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나라, 주로 서구세계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대상 범위가 일반납세인과 자연인, 비법인단체등도 포함된다.

외국의 세제가 간소화되어 가고 통일화되는데 반하여 중국의 증치세율은 계산이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1994년에 중국의 세제 개혁이래, 증치세는 세계개혁의 중점, 중국에서 보편실행, 그리고 재정수입 증가,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가져 왔다. 대외무역 촉진, 발전생산 전문협업화, 사회경제의 발전 여러 방면 촉진한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재정 긴장의 국면이 개선되어 재정압력을 감소시키고 중국이 소비성 증치세를 선택한다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주민 저축이 많이 증가하고 대량 자본이 늘어날 것이다.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며, 중국

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고용사정의 개선을 위하여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 관례의 요구에 중국의 경제주체들이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서방국가의 대부분은 소비형 증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지식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급 신기술 등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구입한 고정 자산을 증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치세의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매출하는 화물, 둘째는 수출하는 화물, 셋째는 농업성격과 비농업성격의 가공, 수리의 노무와 마지막으로 기업 생산경영의 과세품 또는 노무를 들 수 있다. 매출하는 화물에는 과세되는 매출행위와 비과세되는 행위가 포함되는 혼합매출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면세 및 비과세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행위로서 증치세 납세자가 면세 및 비과세 용역을 동시에 경영하는 것이다. 비과세노무를 겸하는 경우는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화물의 매출 또는 제공 과세노무와 동시에 비과세노무를 종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혼합매출 면세 및 비과세 사업과 노무를 겸하는 등 매출에 속하는 행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매출행위로 보겠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치세 과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위에서 서술한 행위가 발생하여 유통과정에서 거래의 흐름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증치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혼합매출행위는 화물의 생산,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적인 기관,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혼합하여 매출하는 행위를 하면 화물을 매출하는 것으로 여겨 마땅히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자로 분류되면 상업기업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렇지 않다면 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 혹은 세무기관에 의뢰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리로 발행할 수 있다. 증치세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산출세액) 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회계 장부가 완전하지 못하여 소규모 납세자<sup>10)</sup>로 분류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지 못하다. 수출에 대

10)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확인은 주관 세무기관이 세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증치세

한 증치세는 면세이며 수출환급세는 없다. 이에 반하여 일반납세자는 반드시 세무 기관에 인정수속을 받아서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일반세금계 산서 혹은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는 기본세율 17% 혹은 저세율 13%를 적용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 증치세 는 면세이고 별도 수출 환급세가 있다.

###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와의 차이점

####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연혁과 특징

196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서 부가가치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어 Duignan보고서(1972년), Tait보고서(1975년, 1976년) 등의 연구 보고를 토대로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도입과 동시에 그 이전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의 8가지 세목 이 폐지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도 같이 도입되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인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가 가치세제도는 GNP형, 소득형, 소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GNP형(Gross product type)은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을 차감한 국민총생산액이 부가가치라고 보 고 있다. 즉, 총수입액에서 중간재(원자재, 반제품 등) 구입액만을 공제하고 자본재 의 구입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에는 소비액뿐만 아니라 총투자 액이 포함된다. 자본재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를 억제하고, 자본재에

---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중국은 〈增值稅小規模納稅人征收管理辦法〉을 제정하여 소규모납세 자를 관리하고 있다. 1) 화물의 생산에 종사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및 화물의 생산 에 종사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화물의 도매나 소매를 함께 경영하는 납세자는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이 100만원 이하 2) 화물의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이 180만원 이하(고권석, 2003: 124 참조).

부가된 부가가치세액은 소비재 가격에 포함되어 전가되므로 부분적으로는 세금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소득형(Income type)은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과 과거에 구입하여 생산에 사용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까지 공제한 국민순생산액(NNP)을 부가가치라고 보고 있다. GNP형보다는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지만 여전히 순투자액(총투자액-감가상각비)이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고 투자억제 효과를 일부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형(Consumption type)은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구입액뿐만 아니라 자본재구입액(총투자액)을 차감한 소비액을 부가가치라고 보고 있다. 이는 자본재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저하시켜 투자를 촉진시키며, 감가상각비등을 계산할 필요도 없으므로 시행이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EEC국가들은 이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의 계산은 각 사업자의 산출액에서 투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공제법(subtractive method)과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및 이윤을 합계하는 가산법(additive method)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법을 택하고 있다. 또한 산출액(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투입액(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간접공제법(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형태를 갖고 있다.<sup>11)</sup>

## 2) 증치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점

최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형태의 중국의 증치세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다음에서는 두 세제에서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에 따르면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화물의 판매,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의 제공, 화물의 수입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화물이라 함은 유형동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11)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형태를 통하여 다단계매상세(sales tax)가 갖고 있는 누적과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인 재화보다 좁은 영역을 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급이라는 표현 역시 판매라는 표현보다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보다 제한되어 있다. 또한 용역에 있어서도 중국에서는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에 대해서만 증치세를 과세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보다 협소하다.<sup>12)</sup>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외국항행용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인정하고 있다. 증치세의 세율은 17%(기본세율), 13%(저세율), 0%(영세율)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규모 납세인에게는 매출액의 6% 또는 4%를 증치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세율이라는 명칭 대신 징수율이라 부른다.<sup>13)</sup>

증치세 결정에 있어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교할 때 고정자산 구입,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화물, 용역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형 증치세법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며, 비정상손실의 발생에 대한 관리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4. 결 론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국은 서구의 사상과는 다른 상업적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실용주의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독특하다. 과거 개방을 앞둔 중국의 역사는 이를 잘 대변해준다. 1860년대 초에 시작된 중국의 자강운동과 양무운동은 유교사상과 중화사상에 뿌리를 두고 중

12) 다만, 중국에서는 증치세의 과세대상의 한계를 영업세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즉, 유형동산이 아닌 부동산 매출은 증치세 대신 영업세 과세대상이며, 매출의제행위로서 8가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 또한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주로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증치세의 과세대상을 보완하고 있다.

13) 중국의 소규모 납세인에 대한 징수율 제도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 과거에 시행하였던 과세특례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과세특례제도에서는 10%의 일반세율 대신 2% 또는 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였다.

국제국의 제도와 유교적 질서를 굳건히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과 과학을 도입하여 중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즉 중체서용으로서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며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자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또한 불교 문화권에 속하면서 서구의 기독교가 경제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제도에 문화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만의 유일한 문화적인 속성과 그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요인까지 포함하여 중국의 경제제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현대 중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증치세법 등에 문화적인 요인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증치세 구조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특성 즉,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의 특성상 생산형 부가세 시스템이었으나, 최근 지역별로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의 기본 바탕에는 중국의 유가사상, 도가사상, 불교문화의 영향 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와 중국의 증치세의 차이점을 간략히 언급하여 중국의 문화에 따른 증치세법이 한국의 세제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에게 사전적인 정보로서 양국의 세제를 비교하는 그 출발점을 제공해준다는 의의가 있겠다.

#### 《參考文獻》

- 고권석, 중국의 증치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중요 차이, 월간공인회계사, 2004. 5.  
 고권석, 중국세법해설, 삼일회계법인, 서울 : 삼일인포마인(주), 2003. 7.  
 고권석, 중국회계해설, 안진회계법인, 서울 : 조세신보사, 2004. 3.  
 김대환, 백영서편, 중국사회성격논쟁,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8. 6.  
 김춘화, 세법 개괄 및 부분증치세, 월간공인회계사, 2005. 5.  
 박정동역, 중국 경제 입문, 경기도 파주시 : 생능 출판사, 2007. 2.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제15차 국제학술심포지움, 중국의 전통상업문화와 현대 시장문화, 2009. 9.

- 유희문의 11인, 현대중국경제, 서울 : 교보문고, 2004. 8.
- 윤성식, 불교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원칙: 부채와 자본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51집, 2009.
- 이근 외 1인, 중국의 기업과 경제, 서울 : 박영사, 2002.
- 이찬도 역, 중국고전의 인간학, 서울 : 을지서적, 1991. 1.
- 주생춘, 중국 전통상업문화 및 현대 기업문화의 계승과 발전, 서울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2009. 9.
-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1998
- 최창현, 도가사상과 카오스이론비교연구-조직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2. 6. 14(2).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08-24/ 2008. 11.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소비과세제도, 조사보고서 제5집, 1993. 4.
- Shuanglin Lin, China's value added tax reform, capital accumulation, and welfare implications, China Economic Review 19, 200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cultural and political factors to Chinese value added tax systems by comparing similarities between Korean tax system and Chinese tax system. In addition, there has been some effort to apply Chinese traditional commercial culture to organizational culture. Chinese traditional commercial culture has relevance in explaining the flexibility that changes GNP type value added tax system into consumption type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s man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Korean value added tax system and Chinese value added tax system in many aspects.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Korean firms that plan to get in the Chines business.

**Keywords** : Chinese value added tax, Korean value added tax, Chinese culture

이 논문은 2009년 11월 02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